



6분 전
양주시, 중앙아시아 고려인 집교
지기 봉사활동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고장예지 시스템' 세계대 중교통협회상 수상

운영기술 탁월성 부문 단독 수상

등록 2019-06-14 오후 3:39:09
수정 2019-06-14 오후 3:39:09

가 가



김보경 기자



☆스크랩

URL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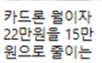
지금 열독 중



[위기의 대학] 2년 뒤 70곳 폐교 위기... '뿔뿔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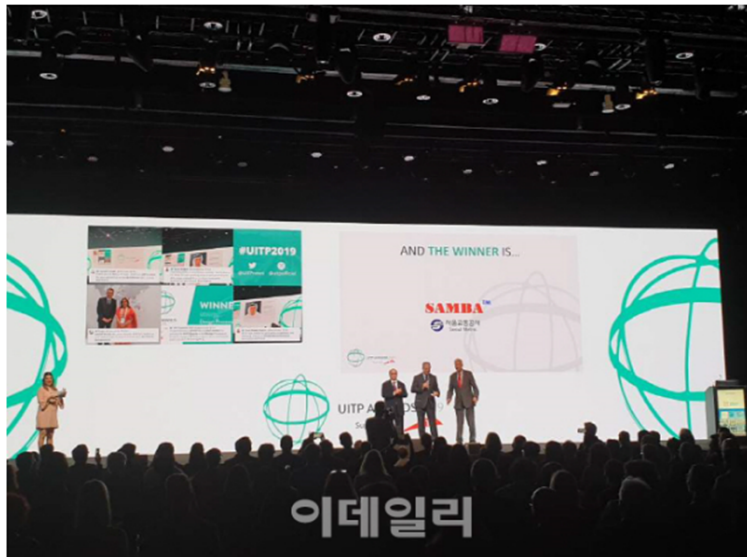


고유정 남편 'CPR 흔적 없다' 발표... '뿔뿔 피'



카드론 홀이자 22만원을 15만원으로 줄이는

by Dable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주최한 '2019 UITP 어워즈(Awards)'에서 고장예지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운영 기술 탁월성' 부문에서 단독 수상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주최한 '2019 UITP 어워즈(Awards)'에서 고장예지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운영 기술 탁월성' 부문에서 단독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UITP는 전 세계 대중교통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

운영 기술의 탁월성 부문에는 전 세계에서 100여개 프로젝트가 응모해 최종 5개 프로젝트(독일 지멘스, 모스크바 메트로, 중국 심양버스, 싱가포르 LTA, 서울교통공사)가 본선에 진출했고 최종 수상기관은 행사 폐회식에서 발표됐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고장 예지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의 고장 징후를 분석, 미리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서울 지하철 5·7·8호선에 적용됐다.

7호선 에스컬레이터 100대에 적용한 결과 고장 한 건당 평균 조치시간이 56분에서 37분으로 34% 감소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유럽 및 아시아 여러 기관과 SAMBA 기술 전수를 협의 중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2019 UITP Awards에서 수상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